생명탈핵 가치 전할 2년 여정 'START'

생명탈핵실크로드 3일 출정

생명탈핵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년간 서울~베트남~인도~바티칸 등을 순례하는 생명탈핵실크로드단의 여정이 마침내 시작됐다.

생명탈핵실크로드(공동대표 김영호 · 김용복 · 이선종)는 5월 3일 출정식을 열고 2019년 4월 21일까지 이어질 생명탈핵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섰다. 생명탈핵실크로드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약 26개국 총 1만1000km를 걸으며 탈핵과 생명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호 공동대표(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는 "약 2년 전 처음 생명실크로드를 떠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 경이롭기까지 하다"면서 "뚜렷한 지원자나 자금 없이도 오늘을 이룬데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김용복 공동대표(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장)도 "오늘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이 발표됐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방콕, 카트만두 등에서 세계환경운동가들의 지혜를 모아 더욱 충실한 헌장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명존중사상은?

여성개발원, 불교호스피스 특강

부처님께서 설하신 생명존중사상은 무엇이고, 이를 현대 호스피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5월 16 · 18 · 23 · 25일 각 오후 1시 총 4회에 걸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존중사상과 호스피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개발원 산하 생명존중운동본부가 주관하며 18일 강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나머지 강의는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 2층서 열린다.

강의는 첫날 △불교 호스피스경-지장경을 중심으로(대구의료원 지도법사 정법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간병의 중요성(명상선원 오솔길 지도법사 평등 스님) 등이 진행된다. 이후 강의는 오진탁 한림대 철학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윤탁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학전문가와 생명윤리연구가 등이 불교적 호스피스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02)722-2101~2 **윤호섭 기자**

"연등회, 세계유산 기준 부합… 등재주체 있어야"

이재수 동국대 교수, 연등회 국제심포지엄서 유네스코 종교의례 분석해 향후 과제 제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에 부합되므로, 연등회 등재를 추진할 주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연등회보존위원회 주체로 열린 2017연등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주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수 동국대 조교수

이 교수는 '유네스코 종교의례 등재 현황과 연등회 등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인류무형문화유산 366건을 검토, 이 가운데 종교의례 성격을 지니는 45건(아시아18 · 유럽13 · 아메리카10 · 아프리카4)을 살펴봤다. 이후 종교의례 유산 7건을 선정해 특징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종교의례 유산 특징으로 △공연예술적 요소 △의례의 예능 및 기능 보유 주체에 다양한 계층 참여 △문화다양성 입장서 존중 △교육과 대중적 소통 위한 노력 △축제적 요소 △도구 및 공예품의 문화상품 역할 △보존 주체의 조직적인 역량 등을 꼽았다.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5가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다양성 갖춘 연등회
"등재 시 인류평화 기여"
주체 갖춰 적극 준비하면
2020년 내 등재여부 결정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2. 해당 유산의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 입증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을 것
4.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폭 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돼 있을 것

특히 기준2(문화 간 대화 기여 · 인류 창조성 입증 등)와 관련해 "등재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서 행해지는 연등회가 널리 알려져 사회통합과 인류평화를 위한 가치 등이 드러난다. 아울러 연등회 과정서 다양한 참여로 열린 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증진 현상을 증명한다"며 "각종 등과 연등행렬에서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적 특성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4(폭 넓게 신청과정에 참여)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주도적인 참여 활동 및 범국민적인 신청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등회 등재 추진 주체 구성 △등재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연등회 가치 정리해 신청 작업 위한 체계적 준비 △지속적인 미디어 활동 △자발적인 참여 방안 모색 등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계승 · 전승을 위한 교육과 기록화 사업 등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과제를 중심으로 등재 준비를 한다면 2019년 11월 최종심사 및 등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2017년에 준비를 충분히 해 2018년 3월에 대표목록 신청을 시작한다면 그 해 9월 신청서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어 2019년 6월까지 2차 심사를 거쳐 11월에 신청서 최종심사 및 등재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등회는 등불을 밝혀 내면의 무명을 깨고 지혜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광명의 환희심으로 세계를 향해 소통하고 온 생명이 함께하는 열린 축제"라며 "연등회의 역사성과 가치, 전승의 과정은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 지금까지도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 속에서 연등회의 의의가 구현되므로 인류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가 '연등회의 재조명-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축제의 관점에서 본 연등회의 가치와 비전(최민성 한신대 교수) △유네스코가 지정한 종교관련 무형문화유산(아이카와 노리코 前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박상미 한국외대 교수) △푸동사원의 전통축제, Giong(히엔 응우웬 베트남 국립문화예술연구원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국대 의료원 '확' 바꾸겠습니다

1일 개혁추진단 발대 위원장엔 자광 스님

급변하는 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국대 의료원이 변화를 모색한다.

동국대 의료원(의료원장 오민구)은 5월 1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중강당서 '의료원 개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 개혁추진위원회는 의료 ·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동국대 의료원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됐다.

추진단을 총괄하는 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맡았으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개혁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개혁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은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한다. 특히 △전문화 △성과평가 개선 △홍보 △공간조정 △의료정보 △한방병원 전략 △대학 전략 등 전략과제 실행과 의견 자문 등은 추진단 산하에 전략과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된다.



동국대 의료원은 5월 1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중강당서 '의료원 개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향후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변화를 통해 경기도 서북부 지역병원에서 전국 수준의 고난도 중증질환 대학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개혁추진단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책임성 결여에 대해 참회하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의와 결탁하지 않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일산병원은 불자와 스님들의 염원을 담아 건립된 병원으로 우리가 개혁을 안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미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해법을 함께 협조 ·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신도지도자' 양성 나서

신도교육 최고위 과정 설정… 이수 시 선혜 품계

조계종이 다른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재가지도자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도교육에서 목표설정이 미약하다는 지적 속에 재가자들의 교육 동참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4월 30일 신도 지도인력 배출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강좌 '신도지도자교육과정'을 6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디지털대학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일정한 신도교육과 신행활동 자격을 갖춘 신도에 한하며, 특히 기존 포교사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도지도자 자격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거나, 일반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성실히 활동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은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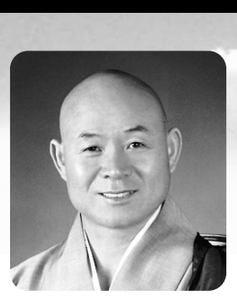
또 부동품계 품수자 중 신행활동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발심 품계를 수지하고 신행활동경력 30년 이상으로 중앙종무기관장, 본사 주지 스님,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 추천을 받은 신도, 재교육을 희망하는 선혜 품계 품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신청하면 3개월간 불교교리 및 소양, 포교실천역량, 신행 교육역량, 신행혁신과 불자상, 조직실천지도 역량 등 28개 분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온라인 수업 외에도 회향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이를 이수하면 조계종 신도 품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선혜 품계가 품서된다.

교육 신청은 5월 26일까지로 우편이나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종무행정 코너 포교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기복불교에서 지성불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이번 신도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신행혁신운동의 첨병으로 활약할 신도지도자에 대한 불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